



東友會報

The Dongguk Alumni News

제217호

2009년

12월 18일(금)

<http://www.dongguk.or.kr>

●발행인 및 편집인 이연택 ●발행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110-718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302호 ●전화 02-733-3991 ●팩스 02-733-3992

장학기금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 우수교수 연구비 지원 매년 확대 동국장학회를 총동창회 유지재단으로



관련기사-2면 특별 인터뷰

2009 동국인의 밤

25만 전 동국인을
2009 동국인의 밤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09년 12월 23일(수) 오후 6시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

※ 회비는 없습니다.

※ 단일 식사대는 정상역(KCC명예회장) 둑무께서 이연택 회장과

동 / 국 / 포 / 럼

□일시 : 2010년 1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연사 : 자승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면 안 내

- 2 특별인터뷰 - 이연택 총동창회장
- 3 특집 - 이사장 정현스님,
고액 장학 기부금 명단
- 4 동정 종합
- 5 동문 컬럼 - 정승석, 김대성, 윤양미
- 6 동문회비

“추락된 모교 명성, 결집된 동문 힘으로 되살릴터”

로스쿨 탈락, 대학평가 27위 등 위기… 3대사학 명성 되찾는데 앞장
장학금 대폭 확대, 우수 교수 연구비 지원, 동국상징 일주문 건립도 추진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신 이래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등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직무를 병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결국 목표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모교 총동창회나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그런 맥락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창회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백일이 막 넘어 섰습니다. 그사이 동창회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에 포진한 우리 동문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숨겨진 보석같은 동문들을 이끌어내 동국발전이라는 큰 틀에 동참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7일** ‘**동국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동문 500여명이 참석하여 다함께 모교 발전을 위한 방향모색에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 11월 10일에도 각 대학원과 학부 학과별 동창회장단과 산재된 동창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꼭넓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창회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동창회에 나와 구성원들과 수시로 미팅을 갖고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미래지향적인 동창회로 면모를 일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학할 50년대 당시만 하여도 우리 모교는 3대사학 또는 5대 종합대학의 명성을 자랑했습

특별 인터뷰 | 이연택 총동창회장

평가 27위라는 낯 뜨거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한 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재정의 부실과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전가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25만 동국 가족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동국발전의 가치를 들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실체가 개미군단입니다.

것은 모교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평가에 중요한 요소인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40명에게 지급되던 것을 100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취임한 이래 약 25억2천만원을 모금하였으나 앞으로 100억원 정도를 확보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여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원원을 500명까지 늘려 국내 최고수준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을 통하여 또 하나의 중요 평가지수가 되는 우수 논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모교와 협의하여 매년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 20명에게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차차 확대할 것입니다.

용운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내놓아도 비견할데 없는 자랑스러운 모교의 큰 영광입니다. 동창회는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 받을 것입니다. 제가 10년전 법대 후원회장을 맡아 우수한 후배들의 법조계 진출을 염원하여 당시 비약적인 합격자 증대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성패의 판가름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모교발전에 관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우리 모교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이 되었습니다. 불교를 전학이념으로 설립된 우리 모교에 자긍심을 심

뼈깎는 아픔 딛고 명문 반열에 올릴터 장학기금 100억 목표 장차 국내 최고 수준 도달 취임 백일만에 25억 모금

다. 모교의 중흥을 이를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25만 동국가족이며 이들이 움직이면 3대사학으로 대변되었던 동국의 영화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동문들의 결집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동창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동문들에게 모교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동문의 일원으로 연대감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흩어진 조직으로 방치되어 온 학과별, 서클별, 지역 또는 직장별 단위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합하여 학과, 단과대는 물론이고 대학원과 서클까지 아우르는 총동창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학사업이라든가 교수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등의 기본적인 동창회 업무는 물론이고 모교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동문들의 정성과 열정을 모아낼 것입니다.

동창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면.

-먼저 조직의 정비와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직능별 부회장 활동과 학과별 대학원별 활동을 강화하여 총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모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의 동우장학회가 재학생들에게 그간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활동이 있어왔으나 기금이 미약하여

셋째, 침체된 25만 동문들의 사기를 진작
하기 위하여 동국의 전통적인 용맹정진의
기상을 구현하면서 불교적인 전통을 현
대디자인과 결합한 일주문형식의 상징적
인 교문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신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
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를 제안
하고 총무원장님께서도 적극 찬동하셨습
니다. 이를 재단과 모교와 함께 숙의하여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총동창회의 모든 자
정과 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론화된
절차로서 동창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독자적인 동창회관을 건립
하여 이를 동문들과 일반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기반으로 삼도록 하
볼 생각입니다.

오랜 전통의 우리 모교는 앞으로도 경제계나 정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동문들을 배출해 낼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도 차후로 동문중심의 취업센터를 개설, 우수한 인재 정보를 공유하여 후배들의 취업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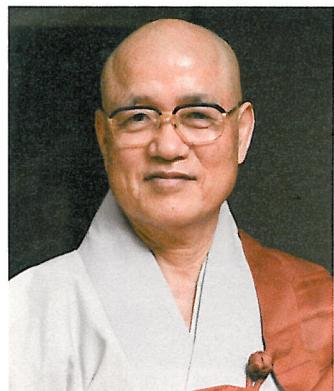
회장님의 각오와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동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 드디어 그때까지는 그대

■ 주요약리

- 전주고등학교 졸업
 - 모교 법학과 졸업
 - 영국 Oxford대학교 객원연구원
 - 일본 東京大學校 객원연구원
 - 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 명예경영학 박사(전북대학교)
 - 명예교육학 박사(공주대학교)
 - 경희대 객원교수
 - 일본 동경국제대학교 객원교수
 - 중앙대 객원교수
 - 동국대 겸임교수, 석좌교수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1행정조정관
(86,88 유치 정부지원단 총괄조정관)
 - 총무처, 노동부 장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2002년 월드컵 공동위원장
 - 제34대, 제36대 대한체육회 회장/
제24대, 제26대 대한올림픽 위원장
 - 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2002 월드컵 성공
적 개최 기여), 청조근정훈장 외 다수

“모교 발전의 동력은 동문들의 힘”



정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열리는 것에 대하여도 감사와 더 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국대학교는 100여년의 전통을 뛰어넘어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발전과 도약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25만 동문을 대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크게 헌신해오신 이연택 총동창회장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어느덧 기축년의 끝에서 경인년으로 넘어가는 전이의 시간인 이때 자랑스런 동국대학교의 동문여러분들과 ‘2009 동국인의 밤’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국 100여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동문여러분들의 모임이 성대하게

지난 100년을 뒤돌아, 명진학원으로 출범한 동국대학교는 숱한 역사의 고난과 격랑을 해치며 우리사회의 동량을 육성하고 민족사 발전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무한경쟁의 대학교육환경 속에서 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

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동국대학교는 외형적 측면에서는 다른 학과 비교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많큼 성장의 속도를 더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영교총장님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일류 동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각계의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25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동국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총동창회의 학교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날로 증진되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연택 회장님이하 동창회 임원여러분들의 노력이 한층 빛을 더하고 있어 배움의 도정에 있는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비 지원 등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동창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모교의 발전과 중흥이 동문사회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우리 동문사회는 각 계각층을 망라하여 우리사회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역량을 동원하여 동문사회의 단합과 모교의 발전과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오늘날 총 동창회에 부여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가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단, 법인, 학교, 그리고 총동창회가 서로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학교와 법인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5만 동문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각각의 노력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양성되고 이러한 동국인들에 의하여 우리사회가 변화, 발전되어 나간다는 생각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와 원칙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힘을 모아나간다면 “일류동국, 세계동국”의 미래가 그리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준비하는 자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총동창회의 모습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앞날에 지혜와 자비의 길을 밝히는 부처님의 혜명이 항상 환하게 비추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뜨거운 모교 사랑 총동창회로 결집 고액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기부 동문 정상영(KCC 명예회장 57법학) 동문 16억 쾌척!



정상영 57/61법학
KCC그룹 명예회장
16억원(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이영하 72/80무역
(주)인슈파인 대표이사
2억원



이두철 89/91사원
삼창기업(주) 회장
1억2천만원



형종호 56/61법학
삼공기업공업(주) 대표이사
1억원



한우삼 63/69농학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1억원



송석환 64/68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1억원



이인정 65/72상학
(주)태인 대표이사
1억원



구자선 79/81경원
일마고 회장
1억원



홍영춘 61/65불교
SK(주) 상임고문
불교학과 동창회 : 1억원(지정 기부)



홍파스님 63/67불교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불교학과 동창회 : 1억원(지정 기부)

필동 단상



정승석

인도철학과 교수
75 인도철학

이탈리아의 유대인으로 '야콥 단코나'라는 상인은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빛의 도시'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그가 말하는 '빛의 도시'는 13세기 중국의 국제적인 무역항인 츠통(刺桐)이라고 한다. 그는 여기에 체류하는 동안 만났던 한

현자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오늘날의 중국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타락상을 예언이나 하듯이 질타한다.

"오늘날에는 도박과 간음을 나쁘다고 여기기는커녕 꽤 놀라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자들마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험 속에서 태평하게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는 것을 보고 즐거워 합니다. 천하의 무질서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그러한 환락에 속게 되는데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환락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저 좀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점점 사악한 인간으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길을 걷다보

동국의 정체성

면 사람 그 자체가 사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같은 세태의 일차적 해결책으로 기대하는 것은 교육이고, 대학이라면 가치관 정립의 마지막 보루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 대학들은 이런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우리 대학의 운영자들과 후원자들은 어떤 반성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궁금하다. 사실은 궁금할 것도 없다. 당연히 우리 대학의 후진성을 염려하면서 국내 서열과 국제적 신인도의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이 새해의 포부를 주도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우리 대학은 매년 걸모습이 바뀌어 왔다. 그런데도 실속은 외양의 변화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은 대체로 책임전가의 수준에 머물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란 동국대학교의 정체성이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듯이 국내 서열의 제고는 대학의 재정적인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신인도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신인도는 그 대학의 고유한 역량과 직결되며, 이 역량은 그 대학만의 정체성으로 발휘될 수 있다.

혹시 동국대학교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짐작컨대 대부분은 '불교'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동문이라면 이것은 바른 답이 아니다.

우리 대학의 정체성은 교훈으로 표방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교훈에는 오직 우리 대학만이 표방하는 덕목이 첫째로 제시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동국대학교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우리 대학의 교훈은 섭심(攝心), 신실(信實), 자애(慈愛), 도세(度世)이다. 이 중 섭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든 교육 기관이 표방하는 덕목이다. 그러나 섭심을 교훈으로 표방하는 대학은 전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학뿐일 것이다.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는 섭심을 "마음을 다잡아 가다듬는다."라고 알게 쉽게 소개하고 있다.

섭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하여 자신을 계발하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다.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섭심을 양육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동국의 빛은 이 같은 역량을 갖춘 동문들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지, 만해관의 옥상에서 밤하늘에 쏘아올린 광선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김대성

한국일보 기자
96 문예창작

'Small is the new Big'

한국에는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나온 세스 고든의 책에서 흘러나오는 주술

이다. E.F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고전과는 품종 자체가 다른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오늘의 허상을 한 꺼풀씩 벗겨낸다. "크게 되고 싶다면 작게 행동하라" "개인이건 조직이건 최고의 자산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같은 경구들로 말이다.

연말 연시에 선후배님들의 가슴이 따뜻한 수필 투도 있을 것이요, 저간의 속속 들리는 잡음과 연이은 위신 추락으로 속을 끓이게 만드는 학교에 대한 매서운 비판도 있을 것이 간 데 결국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어서다.

미래. 그것은 1996년 만 19살이던 그 해 여름 동국대학교 세계화 장학생에 뽑혀 미시간 주립대에서 난생 처음 토익(TOEIC) 시험이라는 걸 칠 때만해도 그것은 몽롱한 불안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꼭 14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국일보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국에서 전략기획실로 파견 나온 지 4년 째고 이런 저런 신규 사업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니며 새벽에도 블랙베리를 통해 송신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는 나의 일상은 이미 세계화 그 자체다.

세스 고든의 논리를 빌어 감히 말하자면 '동국'은 지난 10년이 넘게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는데 실패했다. 일간지 임시 관련 주요 대학 정보에 학교 이름이 빠진지 오래다. 학벌이나 서열제도를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서글픈 일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가뜩이나 낡고 쇠약해 진 브랜드에 결정타를 가했다.

'미래' 보다는 화려한 '과거'에 매달린 학교의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계속해 돌아가는 낡은 레코드 판을 듣는 기분이다. 그런 점에서 '동국'의 복고풍은 수용자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 커뮤니케이션일 따름이다. 해서 이제라도 어깨를 겪고 동국의 미래를 이야기 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동국' 브랜드의 살아 숨쉬는 현현이자 '동국'의 브랜드에 따라 사회에서 평가 받고 있는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이 과제는 우리의 '현실' 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동문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일일이 학교 미래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없는 노릇이다.

동문들로 구성된 '브랜드 관리 위원회'와 '미래 장기 전략 태스크 포스' 라도 구성해 '동국' 만의 작지만 아주 새롭고 큰 이미지와 그에 걸 맞는 장기 계획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자. 최후의 성화봉송 주자들처럼 각계에서 제 나름의 역할과 소명을 코끼리처럼 다 하고 있는 우리의 장점을 이미지와 브랜드로 결집해 보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입시철이면 서로 제 학교가 잘났다고 우기는 타 대학교 훌리건들과의 싸움에서 언제까지 '100년 전통' 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100 전 100때하는 꼴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윤양미
도서출판 산처럼 대표
83 국어국문

연말이다. 뜰 했던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가 걸려오고, 나도 수첩을 뒤적이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인사드려야 할 분들을 챙긴다.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용하게 무사히 한 해를 넘긴다고들 한다. 내년은 또 어떨지 걱정들이다. 세상이 다 어려운데, 나 혼자만 힘들지 않은 것도 이상치 않겠느냐고도 하지만, 정작 해아려보면 이런 불황에 나는 2002년 창사 이래 가장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묵직한 학술서들이 올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면서 큰 뜻을 했는가 하면, 올해 출간한 신간들은 대중로서 제법 주목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교양도서에 모두 뽑혔다. 언젠들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마는 올해는 특히 운이 따라 준 것 같기도 하고, 그간의 노고를 이제 사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다.

1988년 처음 출판계에 입문해서는 뛰어쓰기며, 문장을 다듬는 일 등을 했고, 편집이 무엇인지, 제작이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배워나갔다.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출판은 도제식으로 배워가는 것이지 싶다. 하루아침에 순발력을 발휘하여 일을 체득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제 손으로 뜰을 들여가며 세월 속에서 일들을 익혀가는 것. 하지만 더딘 작업에 지루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출판의 묘미를 알고 빠져든 것은 인문 출판의 편집자가 되면서였다. 1994년도

자만하지 않는 경계

김대중의 <나의 길, 나의 사상>이라는 책을 만들며, 역사 철학 등의 책을 만드는 인문편집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일인출판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것도 편집자로서의 삶에 만족했던 탓이 컸다. 출판사를 차려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할 것을 꿈꾸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책을 펴내서 세상을 놀래키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해왔던 이런 인문학 출판이 내게 너무나 보람 있고 소중해서 인문편집자로서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립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마련인 인문학 출판의 궁색함을 예상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지낸 적도 있었다. 한데 첫 책인 <세계지식인지도>부터 언론이나 독자들의 호응이 커서, 일기에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며 출판계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존경하는 이오덕 선생님의 에세이 <나무처럼 산처럼 1,2>를 펴내기도 했고, 한국의 철도문화사를 조명한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일본 제국주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만철> 등을 처음 국내에 소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식민지 청년 박열의 애인이자 사상적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 평전도 역시 처음 국내에 소개했는데, 이 책은 2006년 KBS-TV <KBS스페셜>에 방송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책이나 출판사가 언론에 많이 소개된 편이라 작지만 존재감 있는 출판사라고 자부해왔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못한 것이 내심 걸리곤 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빠지지 않아, 웬지 지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누군가의 격려 같기도 하다.

회비 납부동문 (단위 : 만원)



1. 회비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졸업년도·학과를 필히 명기해 주십시오.
3. 회비납부기간 : 2009.8.28 - 12.14

고문

▲권노갑(49/53경제)30▲김동정(53/57법학)100▲류근창(46/50문학)30▲선진규(55/59불교)100▲황갑순(49/52정치)50

지도위원

▲권기종(60/64불교)20▲김용필(58/62영문)30▲김행남(61/65정외)30▲문효치(62/66국문)30▲박영식(57/61정치)30▲박영철(46/49문학)2▲박은규(59/61정치)30▲오진모(57/61법학)30
▲한영희(56/61경제)30

부회장

▲김대욱(65/74경영)100▲김민수(59/65정외)100▲김성재(58/63정치)100▲김성호(91/93불원)100▲김윤복(91/93행원)100▲김진찬(64/68경영)100▲김창규(80/84법학)100▲김해수(63/67정외)100▲남균우(58/63법학)100▲민우동(58/64법학)100▲박상호(64/68법학)100▲변기태(79/85경영)100▲보광스님(71/75불교)100▲성웅스님(91/93불원)100▲손인환(81/91미술)100▲송석환(64/68농경)100▲안영태(199행원)100▲연기영(72/75법학)100▲유병완(64/68상학)100▲윤영창(63/67국문)100▲이시우(91/93행원)100▲이창규(62/65경영)100▲이호열(52/56영문)100▲이황우(63/67경행)100▲장민수(72/77농경)100▲장용순(00/04국제통상)100▲정동진(65/69국문)50▲정성렬(70/77연영)100▲조규(75/77경원)100▲한경구(61/64임학)100▲황영수(63/70경제)100▲황일면(75/승가)100

감사

▲이제곤(64/68경제)100

상무이사

▲강경순(92/93경원)20▲강선구(81/85사회개발)20▲고천석(76/83정외)20▲김래동(80/81행원)20▲김보현(91/93불원)20▲김사홍(79/80행원)20▲김선근(65/69인철)20▲김성강(60/04법학)20▲김승기(69/73경영)20▲김예수(71/79식공)10▲김태용

(65/69화학)20▲김영환(63/67정외)20▲김용호(71/75공경)20▲김종서(59/62법학)20▲김창기(95/97경원)20▲김칠봉(58/63법학)20▲김해근(60/64임학)20▲류복수(95/96사원)10▲문철배(82/86사회개발)20▲박대혁(59/63생물)20▲박삼선(51/55법학)20▲박수철(53/57임학)20▲박종훈(69/76정외)20▲박흥서(68/72통계)20▲배영민(68/72식공)20▲변태원(61/63법학)20▲성원모(82/86교육)20▲손문영(69/73수자원)20▲신명식(95/97정원)20▲안종진(51/59영문)20▲양병호(60/64영문)20▲유재한(86/90회계)20▲유정우(58/63법학)20▲윤만진(94/96경원)20▲윤세철(61/70국문)20▲이계문(80/84공경)20▲이능희(63/67정외)100▲남균우(58/63법학)100▲민우동(58/64법학)100▲박상호(64/68법학)100▲변기태(79/85경영)100▲보광스님(71/75불교)100▲성웅스님(91/93불원)100▲손인환(81/91미술)100▲송석환(64/68농경)100▲안영태(199행원)100▲연기영(72/75법학)100▲유병완(64/68상학)100▲윤영창(63/67국문)100▲이시우(91/93행원)100▲이창규(62/65경영)100▲이호열(52/56영문)100▲이황우(63/67경행)100▲장민수(72/77농경)100▲장용순(00/04국제통상)100▲정동진(65/69국문)50▲정성렬(70/77연영)100▲조규(75/77경원)100▲한경구(61/64임학)100▲황영수(63/70경제)100▲황일면(75/승가)100

일반회원

▲강문선(70/74불교)2▲강성권(95/01수학)2▲경수스님()2▲고기철(82/90경행)2▲고시무(64/71법학)2▲고영종(58/62경제)2▲곽노경(73/80경제)2▲구광모(74/80행정)2▲구민정(00/06행정)2▲구은수(78/85경행)2▲권대성(65/72법학)2▲권오춘(59/61영문)2▲권하나(00/04중문)2▲김기덕(70/74사회교육)2▲김기수(04/08경영)2▲김기현(79/84사교)2▲김남일(77/불교)2▲김대용()2▲김덕진(90/94불교)2▲김동욱(85/92경행)2▲김동원(60/64정외)2▲김동진(69/80행원)2▲김명자(88미술)2▲김부동(/90철학)2▲김상민(92/99응생)2▲김성엽(03/05법학)2▲김수진(00/04정보통신)2▲김순제(/56경제)2▲김영모(89/95국교)2▲김연민(84/91법

이사

▲강무남(64/68경영)10▲곽노성(69/77전자)10▲권연옥(72/75행원)10▲김병우(65/69응생)10▲김상숙(69/76국문)10▲김석희(57/63법학)10▲김영희(71/79식공)10▲김태용

동문 여러분의 회비 : 소중히/아껴서 쓰겠습니다.

1. 연회비(2만원)는 본 동창회보 제작·발송의 주 재원입니다. 연회비 납부는 영원히 지속되는 동문사랑의 출발입니다.
2. 앞으로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 위주로 회보를 배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동봉한 지로용지/ 1년에 한번만!!!)
3. 주소 불명으로 인한 반송 회보로 막대한 비용·인력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할 때는 변경된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학)2▲김영운(78/84교육)2 (04/08경영)2▲우영애(03/07경제)2▲우인보(94/불교)2▲김용성(81/88불교)2▲원영상(93/99교육)2▲김윤경(62/63경제)2▲유상갑(98/01불교)2▲김일(81/88수교)2▲김장원(01/07경국교)2▲유영식(55/61법영)2▲김재완(92/97인철)2 (89/91행원)10▲박재성(70/72건축)10▲박준국(77/81공경)10▲백용운(86/90수교)10▲신화섭(84/92화학)10▲양부선(94/98불교)10▲양재인(64/71정외)10▲윤인상(/72경영)10▲이갑채(00/01사원)10▲이경범(65/69경행)10▲이남주(94행정)2▲이명욱(65/69행정)10▲이문호(72/77임학)10▲이윤영(71/78토목)10▲이치화(70/74국문)10▲이현호(69/73공경)10▲이홍규(59/63경제)10▲장대진(89/95정외)10▲장봉현(68/72경행)10▲장적스님(/90선학)10▲조성옥(98/01행원)10▲진창훈(66/70상학)10▲차진구(78/82건축)10▲최락상(71/75전기)12▲최명재(57/61영문)10▲최병곤(84/86경원)10▲최병순(04/08국제통상)10▲최창영(61/67법학)10▲최해수(05/06사원)10▲홍성하(65/72응생)10

▲이동윤(02/07경제)2▲이목자(/87철학)2▲이범준(92/99화학)2▲이범진(83/87농생)2▲류제인(01/03생명자원)2▲맹주옥(83/90행정)2▲문명은(82/86국교)2▲문봉구(57/61경제)2▲민수영(59/65정외)2▲박광순(64/71정외)2▲박규태(85/91일문)2▲박기진(84/91법학)2▲박동해(58/65법학)2▲박두호(63/67경행)2▲박명양(53/57경제)2▲박상연(79/83국문)2▲박수경(79/83수교)2▲박재곤(02/08교육)2▲박정민(79/83미술)2▲박정우(92/94건축)2▲박준모(04/08국제통상)2▲박진혁(07/09사원)2▲박현정(84/89지교)2▲백경선(80/84불교)2▲백동산(76/80경행)2▲백영철(/73정외)2▲변재우(03/06회계)2▲보문사(/)2▲서행원(78/83사교)2▲서홍석(57/61정치)2▲선은호(96/03화학)2▲손선훈(97/00교육)2▲송부용(78/82농경)2▲송윤식(/60법학)2▲송재신(58/62법학)2▲신윤길(73/80경행)2▲신현숙(81/83국문)2▲안영균(83/87무역)2▲안주희(81/85불교)2▲안치웅(81/88지교)2▲안한상(67/69국문)2▲양승룡(03/07국제통상)2▲어영일(59/63정치)2▲엄승희(86/93체교)2▲여환준(67/71법학)2▲오성운(83/88정외)2▲오세청(60/67상학)2▲오정균(73/77승가)2▲오철구(50/53정치)2▲우설아(04/08경영)2▲우인보(93/99경제)2▲정강대(81/88법학)2▲정기홍(77/81행정)2▲정부근(77/81수교)2▲정성윤(91/98응생)2▲정성윤(75/82행정)2▲정영식(60/63법학)2▲정영식(83/91행정)2▲정용배(55/59경제)2▲정차숙(04/08경영)2▲정찬일(90/97국교)2▲정충숙(/96국교)2▲정준덕(55/59법학)2▲정종래(78/85국교)2▲정학주(64/72법학)2▲조성실(58/60경제)2▲조우형(04/08경영)2▲조운일(93/97체교)2▲조은정(92/96수교)2▲조지훈(05/07법학)2▲조하성(77/84경행)2▲주희재(80/85영문)2▲지경룡(73/77체교)2▲지용진(82/87경행)2▲차형천(72/82정외)2▲최병윤(82/89경영)2▲최빈희(01/07회계)2▲최상철(64/71경영)2▲최선희(77/79국교)2▲최영태(75/77행원)2▲최예형(53/57경제)2▲최완철(59/61경제)2▲최재규(86/90법학)2▲최재오(57/61법학)2▲최재호(56/60경제)2▲최정수(90/94영문)2▲최정육(91/96윤리)2▲최종태(57/61법학)2▲최중열(56/62정치)2▲최현복(68/75무역)2▲최홍길(58/62경제)2▲최희주(04/06국제통상)2▲표외숙(76/80일원)2▲하문수(55/63경제)2▲한도수(58/61경제)2▲한문규(84/88불교)2▲한은정(94/99윤리)2▲한진수(86/94미술)2▲한형숙(81/85영문)2▲허덕조(54/57정치)2▲허백무(77/81농생)2▲허장민(64/68정외)2▲홍경택(88/95국문)2▲홍동표(88/95수학과)2▲황종환(96/03행정)2

특별회비

▲박종윤(56/59경제)100▲배주환(79전기)5▲성웅스님(91/93불원)100▲송석환(64/68농경)2000▲혜담스님(01불원)30

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K S P O
국민체육진흥공단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처럼

이제 우리 마음의 페달을 힘껏 밟아야 합니다.
오천만이 함께 페달을 밟고 달려갈 때까지
K-Cycle은 희망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K CYCLE

“모교발전에 초석을 놓는 동국장학회 탄생”

학과, 지역 장학기금 본회 입금시 20% 추가 지원 및 세제 혜택

총동창회에서는 그동안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에서 해마다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왔다. 이는 타 대학의 장학재단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연택 총동창회회장님의 취임한 이래 총동창회 첫 번째 과제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대학평가 27위라는 한심한 평판도를 극복하고 3대사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창회 장학금 지원을 **종전의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순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순차적으로 500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학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교수학술연구논문을 지원하고 문화체육 발전 사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 (재)동우장학회는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지원과 연구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장학 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장학 재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내용은 명칭을 ‘(재) 동우장학회’에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로 바꾸고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및 문화체육발전의 지원, 동창회보 발행 등을 지원하는 목적 사업을 명시하여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동국장학회의 이사장을 총동창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총동창회의 유지재

단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총동창회 회원들이 회비를 분담금 또는 기부금 형식으로 동국장학회 계좌에 입금시킬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 및 임원이 내는 회비, 분담금, 기부금은 공익 법인으로서 행정관청의 감독을 철저히 받으면서 투명하게 관리되어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지게된다.** 그리고 본 법인이 총동창회의 유지재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동창회도 종전과 달리 내실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한 안정된 운영을 기할수 있게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총동창회 동국장학회에 기부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모교에 내는 기부금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언론기관 등의 학교평가 순위를 향상시키는 ‘학생당 장학금’ 지급액은 동국장학회에서 지급되어도 똑같은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종전에 학과 동문회에서 모금하여 지급하던 장학금 등을 동국장학회로 입금시키게되면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는 전문 행정직원을 두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며, 명료하게 관리운용 된다. 그리고 객관화

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금융계 출신의 기금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자문도록 하였다. 여기에다 학과 단위의 장학금이 동국장학회로 입금되면 **총금액의 20%를 총동창회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그만큼 더 많은 수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보게 된다.** 학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금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동국장학회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기부금 세제 혜택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법인 및 개인이 기부하신 금액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신입생 확보, 재학생 지원, 교수연구비 지원 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 수희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국장학회에 기부하신 금액은 연간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4조 2항)
- 개인 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동국장학회에 기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동국장학회 장학기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재)동국장학회



“참여하는 기쁨, 함께 배우는 전법도량 정각원!”

정각원은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사와 강사를 모시어 법회와 실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여! 동참하시어 모교를 사랑하고 현실생활에 행복을 구가하시기 바랍니다.

-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법회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5:00~6:00
- 재학생을 위한 정기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5:30~7:00
-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한 토요법회 및 불교대강좌 / 매주 오전 10:00~12:00

(자세한 사항은 정각원 홈페이지 참조 <http://jeonggak.dongguk.edu/>).

— 그 러 는 — 정 각 원 — 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東友會報

The Dongguk Alumni News

제217호

별지

<http://dongguk.or.kr>

●발행인 및 편집인 이연택 ●발행처 (재)동국장학회 110-718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302호 ●전화 02-733-3991 ●팩스 02-733-3992

동국인의 밤 1500여명 운집! 역대 총동창회 사상 최대



▲ 좌로부터 김동정 고문,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전순우 전총동창회장, 오영교 모교총장, 이연택 총동창회장, 성관 상임이사,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 원용선 고문



2010년 제1회 동국포럼

- 일시 : 2010년 1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연사 : 자승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장소 : 장충동, 앰배서더호텔2층 그랜드볼룸
□회비 : 2만원

2009 동국인의 밤, 뜨거운 열기

예비좌석마저 넘쳐 아쉬운 발길 돌리기도…

절절한 모교애… 동국중흥 마지막 기회

모교의 위상 추락을 크게 우려하는 동문들이 드디어 일어섰다. 누적된 악재로 인한 모교의 위신이 더 이상 추락될 여지조차 없어 보인 작금의 현실에 동문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모교 위상 추락,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2009년 12월 2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모인 천오백여 동문들의 모교를 향한 애끓는 심정은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여섯 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행사였지만 훨씬 전부터 홀을 가득 채운 동문들의 열기는 이미 만석을 넘어 예비공간조차 입주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는 모교 총동창회가 출범한 아래 가장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공식석상으로 기록된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속칭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모교의 위신추락과 대학평가 27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질타하며 모교와 재단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어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장학기금모금에 동문 모두가 동참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장학기금을 중점사업으로 내걸었다.

참담한 심정 가눌길 없어

여기에 우수교수 연구를 진흥할 수 있는 지원을 매년 확대하여 연구풍토 진작에 일조를 더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홀을 가득 채운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십여 차례 이상 받는 등 자못 그 열기가 장내를 넘치게 하였다.

동국중흥은 불교중흥과 궤를 같이해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은 영상메세지를 통하여 ‘불교의 발전이 동국의 발전이며 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이 출범하

는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모교발전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도 모교중흥에 앞장설 터

이어 정련 이사장을 대신하여 성관 상임이사는 ‘모교의 참람스런 현실에 몸을 둘 바를 모르겠다’는 인사로 오늘날 질곡에 빠진 모교의 서글픔에 동감을 표하면서 이사장님께 오늘의 열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모교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오영교 총장은 색다른 발언으로 동문들의 의아심을 자아내었다. ‘모교는 휘발유만 넣으면 언제라도 달릴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그동안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교직원들은 불철주야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평가 순위의 추락, 로스쿨 탈락, 신정아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이 없어 참석 동문들을 궁금하게 하였다.

처음 참석한다는 모 동문은 ‘이연택 회장의 연설을 경청한 뒤 모교를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을 느꼈다’는 심회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어 모교를 빛낸 동문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가 이어지며 여흥과 만찬으로 웃다한 소회를 풀기도 하였다.

한편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에 이어 당일 송년의밤에 소요된 만찬비용을 맡아준 KCC그룹의 정상영 명예회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0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였음에도 1500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참석하여 이 중 약 300명의 동문들이 제때 식사를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주최측에서는 다음번 행사에 불찰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엄숙히 거행된 국민의례



▲ 이영하(72무역) 동문 장학기금 2억원 전달



▲ 정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성관 상임이사 인사 말씀



▲ 세월을 뛰어넘은 화기충만한 만남